

2024. 1. 6.(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조경과장

유혜미

02-2133-21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7쪽

조경시설팀장

신재원

02-2133-2115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건물 옥상을 아름다운 매력가든으로

- ‘옥상정원 조성사업’ 통해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 3,600㎡ 조성 예정
 - 2022년 시작해 2023년까지 총 785개소의 도심 옥상정원 조성
 - 옥상정원 조성 시 시민 만족도 높고 평균 온도 완화, 습도 상승 등 미기후 개선 효과 확인
- ※ 폭염기간 옥상녹화지-비녹화지 평균 온도차 - 2.41℃, 평균 습도차 12.37%

- 서울 곳곳의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여가공간인 ‘옥상정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올해에는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도심 곳곳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기후환경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 옥상녹화는 콘크리트 건물과 불투수포장이 주된 도시환경에서 열섬현상, 도심홍수, 미세먼지 등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필수적 대책이다.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권 외부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도심 속 시각적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개방공간)으로서 ‘옥상정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328,133 m^2)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서울시에서는 옥상정원 사업지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물상변화, 유지관리 현황, 이용자 설문조사, 온습도 개선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 2023년에 실시한 ‘옥상정원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옥상정원 “이용목적”은 휴게·휴식 54%, 업무회의 16%, 자연관찰 15%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만족도”는 49% 이상이 ‘매우 만족’, 44% 이상이 ‘만족’ 한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의 온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C , 평균 습도차는 12.37%로 건물옥상의 미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 ※ 미기후 : 주변환경과는 다른 특정 부분의 미시적인 기후로 일반적으로 생활영역인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까지의 기후를 일컫음.

- 올해 사업은 그동안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조성 기준은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 공공 및 민간참여의 독려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사업참여의 부담 요인이었던 ‘녹지율 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80%에서 60%로 완화하여 다양한 옥상정원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사업 참여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옥상정원 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로 건물안전성, 사업효과, 유지관리계획,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의 건물 옥상은 회색빛으로 빼곡한 콘크리트 숲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틈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대상’이기도 하다”라며 “역설적으로 초록(우레탄 페인트)으로 덮인 서울의 옥상경관을 옥상정원의 확산을 통해 매계절, 매시간이 다채로운 ‘꽃숲’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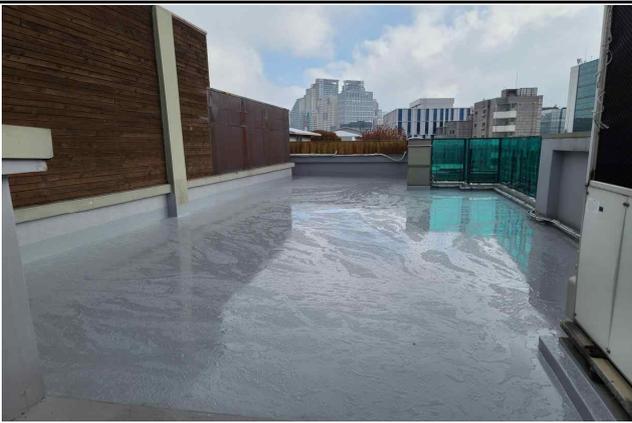
붙임1	2024년 옥상정원 대상지 목록
------------	--------------------------

(단위 : m²)

연번	자 치 구	대 상 지	소유	사업면적	비고
계	총 10개소(민간3, 구5, 공공2)			3,667	
1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민간	500	
2	관악구	서울숲 요양원	민간	405	
3	강남구	유레카필름프로덕션 빌딩	민간	250	
4	구로구	구로구의회	구	138	
5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구	200	
6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구	428	
7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구	46	
8	성동구	성수2가제3동주민센터	구	350	
9	성북구	성북경찰서	공공	150	
10	용산구	전쟁기념관	공공	1,200	



중구 서울역 옥상정원



중구 신당동 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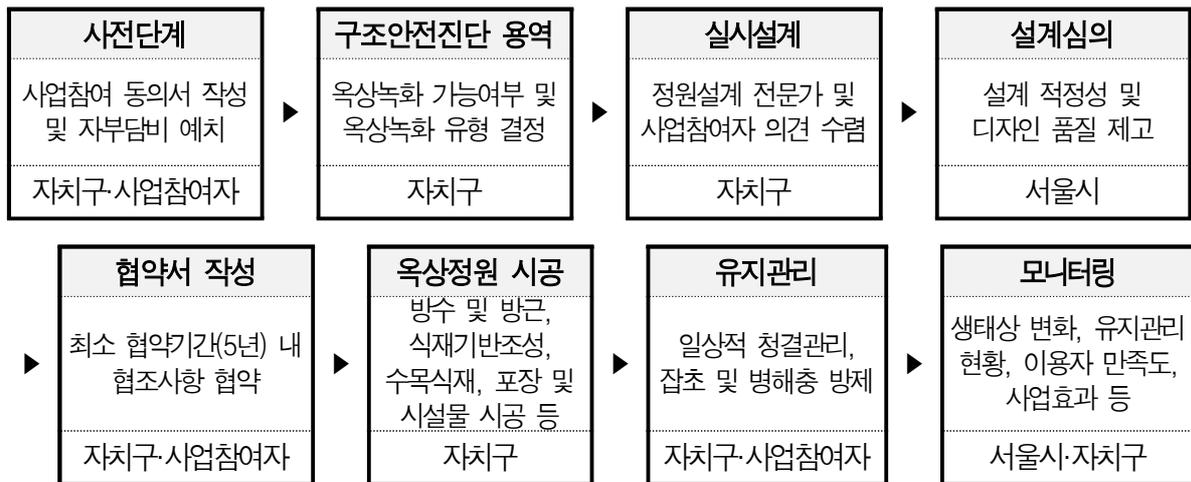
서초구 대법원



송파구 송파구의회

|Q1| 옥상정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 ◆ 금년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내 건물옥상 총 10개소(공공2,구5,민간3)를 대상으로 추진예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참여자(건축주)와 협의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협약을 추진함
- ◆ 추진 절차는 사전단계로 사업참여동의와 자부담비 예치 후, 1단계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옥상녹화 가능여부 및 녹화유형(경량형·혼합형·중량형)을 결정하고, 2단계로 설계용역과 설계심의를 실시하며, 3단계로 옥상녹화를 시공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함



|Q2|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은?

- ◆ 대상지 : 시·자치구·국가·공공기관·민간 소유 건물, 가로구조물
 -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30㎡ 이상인 곳
 - 옥상정원 조성, 공간활용, 유지관리 의지가 높은 곳
 - 옥상정원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곳
 - 기초성지 중 시민이용이 활발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하나 시설이 노후하여 정비 시급한 곳
 - 가로구조물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관련 기관 협의 필요)
 - ※도로의 부속물 예시: 버스정류시설, 주차장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 제외지
 -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옥상정원 조성 후 5년 이상 유지가 어려운 곳
 - 새로운 녹지조성 가능 면적이 30㎡ 미만인 곳
- ◆ 대상지 평가 사항
 - 예비진단 조사표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누수 및 균열, 구조 및 용도변경 사항 등
 - 옥상정원의 다중이용 가능성 등 사업효과성 : 시민 개방계획, 접근성, 이용대상, 이용 예상인원 등
 - 현재 옥상정원이 조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지 우선 검토
 - 기초성지는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 사업지 또는 기존 자부담비 이상 확보 가능 시 우선 검토